

\*\*\* 이 논문은 교과교육학 연구 창간호 (한국교과교육학회, 1997.12. pp.11-26)에 게재된 논문임.

## 國語教育學의 正體性 確立 方案 研究\*

### 박 영 목\*\*

#### < 요약 >

이 논문에서는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어교육학의 개념, 연구 대상 및 목표, 연구 영역, 연구 방법 등의 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국어교육 현상을 학교 현장의 국어교육 실태, 국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국어교사 양성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국어교육학의 개념, 대상, 영역,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국어교육 현상 진단과 기존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국어교육학계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 교육의 배경 학문이어야 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이 명료하지 않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는 교과 교육학으로서의 국어 교육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범모, 1974). 이 때에 제기된, 교과교육학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첫째는 학교 교육은 반드시 어떤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상을 연구하기

-----  
\* 이 논문은 홍익대학교 교내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된 논문임.

\*\* 朴泳穆 弘益大 師大 國語教育科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 교육학 내지 교과 교육 이론을 연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였고, 둘째는 학교에서의 주된 교육 활동은 교과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 교육학 이론보다 각과 교육학 이론에 대한 요청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였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교육학 이론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의 국어교육학 연구는 주로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실은 주로 ‘국어과교육론’ 등의 저술을 통하여 발표되었다(노명완, 박영목, 권경안; 1987 등).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어교육연구실에 수행한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노명완 외, 1986)의 과정에서 국어교육 현상에 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당시의 국어교육학자들은 국어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에서 수학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어국문학과 또는 교육학과의 박사 과정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외국 대학의 박사 과정에서 언어교육학을 전공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와 교원대에 박사 과정이 설치되면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으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어교육학 연구는 국어교육 현상의 개선을 위한 실제적 연구와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어교육 현상의 개선을 위한 연구의 예로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국어교육연구부에서 수행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박영목 외, 1992) 등을 들 수 있다.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 논문의 예로서 ‘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구조’ (이용주 외, 199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저술의 예로서 ‘문학교육론’(구인환 외, 1991), ‘국어교육의 원리’(김수업, 1991),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최현섭 외, 1995), ‘국어 교과와 논리와 교육’ (이대규, 1995),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이용주, 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김대행, 1995), ‘국어교육학 개론’ (최현섭 외, 1996), ‘국어교육학 원론’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1996) 등을 들 수 있다.

국어교육학이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국어교육학을 국어학과 국문학과 교육학의 단순 결합으로 잘못 인식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국어교육의 중핵적인 목표인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과 직결되는 언어 표현 이론과 언어 이해 이론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자의 수가 매우 적었으며, 그 결과 국어 교육 현상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극히 부진하였고, 심지어는 무엇을 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심각한 혼란을 겪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교육학의 개념과 탐구 대상과 탐구 영역과 방법을 규명함으로써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 국어교육 현상을 이론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국어교육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질적 개선이 보다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학교 현장의 국어교육 현상을 진단해 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국어교육학의 개념과 대상과 영역과 방법을 정리해보고, 서로 다른 견해와 시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국어교육 현상의 진단

### 1. 학교 현장의 국어교육 실태

초등학교 국어 교과는 학생들에게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사용 기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의 경험 세계에 적합한 문학 작품의 감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어 교과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제5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세 책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5학년과 6학년은 제5차의 경우와는 달리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의 두 책으로 편찬되고 있다. 언어 지식 영역과 문학 영역의 지도 내용은 이들 각 교과서의 단원 학습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지도 내용과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각 단원 학습 활동을 편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박영목, 이인제, 손영애, 신난수; 1992)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어 교과의 영역별 지도 및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세 책으로 편찬한 이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언어사용 기능의 효과적인 신장을 위한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은 과정 중심,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지 못하고 결과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언어사

용 기능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는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 신장의 기저가 되는 원리와 절차에 관한 지식을 학습시키고, 실제적인 표현 및 이해 학습 활동을 통하여 언어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있다.

현행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 교과 내용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기 듣기 단원, 읽기 단원, 쓰기 단원, 언어(문법) 단원, 문학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국어과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어과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을 교원 양성 기관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박영목, 이삼형, 윤여탁, 허천행: 1992). 이것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이 국어학과 국문학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적 지식 즉 국어 표현 이론과 이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으며, 국어 교과의 각 하위 영역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 언어와 국어에 관한 지식, 문학에 관한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국어 교과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통 필수 과목으로서 국어 과목을 설정하고, 국어 과목의 심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서 화법 과목, 독서 과목, 작문 과목, 문법 과목, 문학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 과목의 내용 영역은 중학교 국어교과와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와 언어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의 세 가지 유형별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단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편찬되어 있다. 국어 교과와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은 국어 과목의 말하기와 듣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언어(지식) 영역, 문학 영역의 내용을 더욱 심화시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현장의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은 현재 고등학교 국어 교과와 하위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원 양성 기관의 국어교육과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국어학과 국문학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화법, 독서, 작문 등의 과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6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박영목, 손영애, 정준섭 외, 1992). 국어 교과를 통하여 길러 주고자 하는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의사 소통 능력임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전제로 하는 고등 사고 능력이다. 고등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국어 교사가 표현 이론과 이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론의 바탕 위에서 학생들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의 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국어 교사의 전문성

국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어과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국어 교과서가 개편된다고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교사가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실천하지 못한다면 국어 교육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학교 현장의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요건을 언어교육의 최근 동향을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들 요건은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첫째, 학습자 중심으로 국어과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성장 발달의 전형적 유형을 이해해야 하고, 언어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취 목표 및 수준을 이해해야 하며, 학생들의 배경 지식 및 흥미와 부합되는 주제, 텍스트, 활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 유형 및 언어사용 유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 교과목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어 교과목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목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 이론과 작문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해야 하고, 언어의 구조와 사용과 변화 등에 관한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해야 하고, 구어 텍스트와 문어 텍스트의 관습 및 규칙을 이해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작문과 독해를 위한 전략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어교육의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학습 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어과 수업을 일관성 있는 원리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즉 점진적 책임 이양, 자율적 학습의 점진적 조장, 실제적 성장과 잠재적 성장의 거리 조정 등을 이해하고, 작문 능력 및 독서 능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국어과 수업 전략과 효과적인 학급 운영 방법 및 수업 운영 방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언어사용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학습 지도의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목의 내용 영역들 사이의 관련성은 물론 국어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며, 국어 교과목의 내용 영역들간의 관련성과 다른 교과목과의 연관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수업 전략을 이해해야 하고, 국어 교과목의 영역별 학습 지도 과정에서 주요 문제, 주제, 개념, 장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학습 지도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국어과 수업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문화 집단과 연관된 학습의 유형과 언어사용의 유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언어사용 방식의 다양성, 언어사용 맥락의 다양성 등을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언어의 이해 방식과 사용 방식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영향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 전략 및 작문 전략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 교육과 관련되는 전문 조직 및 자원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동료 교사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 구성 요소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어교육 전문가 집단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어 교사의 전문성 문제는 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양, 교직, 전공의 세 영역으로 편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40학점 내외의 교양 과정과, 20학점 내외의 교직 과정, 80학점 내외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교육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공 과정 교과목의 대부분이 국어국문학과와 전공 과정 교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과, 교직 과정 교과목이 교육학과의 기초 교육학 교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어 교육학 관련 과목은 교직 과정 교과목 속에 포함시켜 국어 교육론과 국어 교수법(혹은 국어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의 2과목 4학점으로 편성해 온 학교도 많았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경우, 국어교육과의 학생들은 국어교육론과 국어교수법 2개 과목 4학점만을 이수하고 국어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고, 중등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국어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연구(한철우, 성낙수, 이인제: 1994)에 의하면, 면담에 응한 국어 교사들의 대부분은 국어 교과목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국어학과 국어학 관련 단원을 지도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국어학과 국문학 관련 단원의 지도 과정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국어 문법에 관한 지식, 국문학사에 관한 지식, 문학 작품의 작가와 배경에 관한 지식 등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지식 위주로 평가를 하는 식의 파행적인 국어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일부 대학에서 교과 교육학 관련 과목을 증설하는 추세에 있으나 과목수와 과목 명에 있어서 각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은 교과 교육학의 편성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전공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둘째 유형은 교과 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비사범계 학생의 교직 과정 이수 규정에 제시된 최소 이수 과목(국어과 교육론 2학점, 국어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2학점)만을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원 양성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어교육학 관련 과목은 국어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내용과 학교 현장 국어과의 교육 내용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어 왔으며, 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교원 양성 기관에서 제대로 길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학 관련 과목들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Ⅲ. 국어교육학의 정체성 확립 방안

#### 1. 국어교육학의 개념 정립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어교육학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약간씩 다른 시각 혹은 관점에서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규정하였는 바, 다음에서는 먼저 이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용주 외(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시각을 전제로 한 국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는 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다른 학문들과의 변별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국어 활동의 전 국면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구조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게 되면 국어교육 현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버릴 위험성이 있으며, 국어교육학의 대상을 사회 각 분야 사람들의 모든 국어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게 되면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이 명료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다.

김대행(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국어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연구·개발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사용된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국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 활동이며, ‘교육’은 정확성과 효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활동이고, 지식은 국어 활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어교육 자체의 논리에 따라 구조화된 지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어교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과’의 의미를 각급 학교 교과목으로서의 국어는 물론 사회 생활 전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활동의 교육에 필요한 지식의 총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현섭(최현섭 외 1995, 10-31)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국어교육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론을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을 ‘국어 활동’의 일부로, ‘국어과교육’을 ‘국어교육’의 일부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 현상은 국어사용 현상, 국어지식 현상, 국어예술 현상 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는 하



지만 이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현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국어지식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국어학이고, 국어예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문학학이고, 국어사용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국어사용학인 것과 궤를 같이하여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국어교육학이라는 것이다. 국어교육 현상은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하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국어교육과정론 국어교수학습론 국어교재론, 국어평가론 등이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명완(최현섭외 1996, 16-64)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국어교육 현상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규정하고, 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론 구축의 필요성을 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안목에서의 연구, 국어교육 현장의 견인력 확보, 인접 학문의 예측에서의 탈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어학, 국문학, 교육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연관성 및 이들 학문의 최근 동향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어교육학은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국어교육 현상의 분야와 요소를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 국어교육 현상의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 현상은 그 분야를 기준으로 할 때,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사회에서의 국어교육,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현상 등으로 실재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국어교육과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은 국어교육학의 이차적인 관심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야를 구분해야 할 이유는 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이들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실용학과 응용학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교육학에 대한 요청이 이들 분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어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 현상은 교육 현상의 일부이다. 교육 현상은 우선 교육의 개념을 규명함으로써 그 실체를 더욱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릴 수 있다. 교육의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교육은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의 수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의 대상을 개인으로 잡느냐 사회로 잡느냐 국가로 잡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가 가능하다. 교육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교육은 민주적 인격의 계발 과정이라든가 바람직한 진리와 가치관으로의 접근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교육은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이들 정의는 결국 두 가지 교육관 중의 어느 하나에 귀속될 수 있다. 하나는 주입과 적용으로서의 교육관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과 자기 형성으로서의 교육관이다. 성장과 자기 형성으로서의 교육관에 서서 내릴 수 있는 교육의 개념은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인적 인간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어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국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은 국어교육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어교육학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는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이며,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현상과 사회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와 체계에 따라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에서는 국어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국어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평가와 자료 등의 요인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 2.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과 목표 정립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약간씩 다른 시각 혹은 관점에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 혹은 목표를 설정하였는 바, 다음에서는 먼저 이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용주 외(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을 일차적으로 ‘국어 활동을 잘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이론’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론의 개발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국어 활동의 원리를 사용 원리와 문화 원리의 두 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사용 원리는 기호로서의 국어 체계에 작용하는 원리로서 표준성, 규범성, 공시성, 효율성, 공공성의 기준에 의해 운용되며, 문화 원리는 국어를 통해 이룩된 양식적 질서에 주로 작용하는 원리로서 역사성, 창조성, 통시성, 감동성, 개별성의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어 활동의 원리를 사용 원리와 문화 원리로 구분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어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로서의 국어 활동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해 온 경향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에서 국어 활동의 원리를 사용 원리와 문화 원리로 구분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사용으로서의 국어 활동과 문화로서의 국어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실제의 국어 활동에서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측면이 아니라 동시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어 활동의 원리를 사용과 문화의 두 축으로 구분하는 기준 및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규범성의 기준을 더 중시할 수도 있고, 감동성의 기준을 더 중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화의 원리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은 실제의 국어 활동 과정에서 사용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행(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목표를 국어교육을 위한 이론 개발에 두고, 연구 대상을 국어 활동의 원리 연구, 국어교육 방법의 원리 연구, 국어교과의 연구 방법론 연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어교육학 연구는 국어 활동의 능력 향상에 관련된 지식을 교육적 논리 체계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현섭(최현섭 외 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일차적 연구 대상을 국어사용 현상과 국어 지식 현상과 국어 예술 현상의 각각에 대한 인식론적, 가치론적, 조직론적, 지도론적, 평가론적 연구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식론적 연구를 통하여 국어교육의 목적을 연구하고, 가치론적 연구를 통하여 국어교육의 내용을 연구하며, 조직론적 연구를 통하여 국어교육 내용의 구성 방식을 연구하며, 지도론적 연구와 평가론적 연구를 통하여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국어교육학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노명완(최현섭 외 1996, 16-64)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탐구 대상을 학생들의 ‘국어 생활’과 이에 대한 ‘교육적 노력’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 대상을 인간 요인, 언어 요인, 활동 요인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탐구 대상에 대한 탐구의 수준을 철학 수준, 이론과 모형 수준, 구조와 과정과 전략 수준, 실제 수준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 요인에 대한 탐구의 내용으로서 학생의 성 연령배경 지식 언어 기능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의 언어 표현과 이해 활동에의 작용 방식을 예로 들었으며, 언어 요인에 대한 탐구의 내용으로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표현 언어와 이해 언어, 비문예적 언어와 문예적 언어, 언어 구조물의 구조와 기능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활동 요인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서 언어 활동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예로 들었으며, 교육 요인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서 국어교육의 목표설정, 자료의 선정과 조직, 교수 학습의 방법, 평가 등을 예로 들었다.

우리는 앞에서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국어교육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국어교육학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는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이며,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현상과 사회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와 체계에 따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학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국어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평가와 자료 등의 요인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교육학 연구의 목표와 대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교육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해 왔다. 국어교육의 성격을, 언어 사용 기능 교육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언어사용 기능 교육과 언어 지식 교육과 문학교육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통합된 교육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을, ‘국어 활동’을 잘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언어 사용 기능 교육과 언어 지식 교육과 문학교육으로 삼원화되어 있는 국어교육을 일원화된 논리에 따라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국어교육의 성격을 국어 활동을 잘 하도록 하는 교육의 측면에서 그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 국어교육학 연구의 목표는 국어활동을 잘하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 활동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이론은 국어 활동 자체에 관한 이론과 국어 활동의 교육에 관한 이론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어 활동에 관한 이론과 국어 활동의 교육에 관한 이론의 관계는 국어 활동 자체 관한 이론이 국어 활동의 교육에 관한 이론의 기저 이론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어 활동에 관한 이론 탐구 대상은 활동의 방식 면에서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활동의 목적 면에서 의사소통적 활동과 문학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어교육학 연구의 대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국어교육학 연구의 대상

---

A 국어 활동

(1) 활동의 양식

- ① 표현 활동: 말하기 활동, 쓰기 활동
- ② 이해 활동: 듣기 활동, 읽기 활동

(2) 활동의 목적과 유형

- ① 의사소통적 국어 활동
- ② 문학적 국어 활동

B 국어 활동의 교육

- ① 국어교육의 목적
  - ② 국어교육 내용과 목표
  - ③ 국어교육 방법
  - ④ 국어교육 평가
  - ⑤ 국어교육 자료
-

### 3.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 정립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대상과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약간씩 다른 시각 혹은 관점에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먼저 이들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용주 외(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국어 활동에 관한 이론 연구(내용 연구), 국어 활동을 실현하는 행위에 관한 연구(실행 연구), 국어 활동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관한 연구(방법 연구)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내용 연구의 세부 영역을 사용 원리의 설명 틀로 분류한 연구 영역과 문화 원리의 설명 틀로 분류한 연구한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용 원리와 관련되는 연구 영역으로는 사용하는 국어의 유형과 관련한 연구 영역(언어 형식, 지역성, 사용 맥락, 사용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국어 활동)과 언어 사용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 영역(정보 전달, 정보 표출, 관계 형성, 설득 확산, 미적 쾌감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국어 활동)을 제시하였다. 문화 원리와 관련되는 연구 영역으로는 문화의 속성과 관련한 연구 영역(지향성, 귀속성, 지역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국어 활동)과 문화의 양식과 관련한 연구 영역(전달 양식, 기록 양식, 논의 양식, 오락 양식, 비평 양식, 서사 양식, 극 양식, 서정 양식 등의 국어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행 연구의 하위 영역으로는 이해 영역(식별, 요약, 분석, 비판, 의사 결정 등의 전 과정)과 표현 영역(발상, 관찰 실험, 조직, 표출, 교정 등의 전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방법 연구의 하위 영역으로는 국어교육과정, 국어 교재, 국어교수-학습 방법, 국어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 영역의 체계화 과정에서 국어교육 현상의 핵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이론 영역 또는 전공 영역을 국어교육학의 하위 범주 속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중문화교육 이론, 전통문화교육 이론, 표준문화교육 이론, 전달양식교육 이론, 기록양식교육 이론, 논의양식교육 이론, 오락양식교육 이론, 비평양식교육 이론, 서사양식교육 이론, 극양식교육 이론, 정보언어교육 이론, 정서언어교육이론, 관계형성언어교육 이론, 설득언어교육 이론, 음성·문자언어교육 이론, 표준·향토어교육 이론, 공적·사적언어교육 이론, 모어·외국어·이중어교육 이론, 국어이해교육 이론, 국어표현교육 이론 등의 21개 전공 영역과 함께 위에서 제시한 네 개의 방법 연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어교육학의 내용 연구 영역으로 설정한 ‘국어 활동에 관한 이론 연구’ 영역

과, 실행 연구 영역으로 설정한 ‘국어 활동을 실현하는 행위에 관한 연구’ 영역이 이론 연구와 실행 연구의 구분 틀로서는 변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어 활동의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는 일정한 목적과 유형의 제약을 받으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한다. 국어교육의 가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은 국어 활동의 목적이나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보다는 오히려 국어활동을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

김대행(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일차적으로 내용론적 연구 영역과 교육론적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론적 연구 영역을 다시 도구 영역과 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도구 영역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어 활동이 지닌 규범성과 효율성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다시 체계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과 사용으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문화 영역은 국어 활동을 지배하는 원리로서의 문화적 전통성과 창의성에 관한 이론의 개발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다시 생활 문화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과 예술 문화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이 연구는 이용주 외(1993)의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을 명료하고도 폭넓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체계로서의 국어활동 연구와 기존의 국어학 연구의 변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대중 문화와 매체 언어와 구전 문화 등을 세부 전공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생활 문화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을 사용으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과 대등하게 국어 교육학의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분류 체계상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남는다.

이용주(1993, 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하위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어교육과정론, 국어교재론, 국어교수법(론), 국어(학습)평가론, 국어교사양성론 등을 국어교육학의 일차 하위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영역에 종속되는 영역의 예로서 교재로 사용된 국어활동의 유형이나 문장의 내용이나 장르에 해당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발음, 문법, 시, 소설, 수필, 논문, 일상회화, 신문사설, 서간문 등을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은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달라서 그 하위 영역 설정의 과학적인 근거나 객관성을 추구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위 영역의 체계화에 관한 여러 방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순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대규(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연구 영역을 목적, 내용, 목표, 자료, 방법, 평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각 영역별 연구는 국어과 교육을 구성하는 언어와 문학과 문법의 세 분야 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을 위한 이론 체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노명완(최현섭 외 1996, 16-64)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일차적으로 국어 활동 현상에 대한 연구 영역과 교육 현상에 대한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어 활동 현상에 대한 연구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표현·이해 활동에 대한 연구 영역과 지식에 대한 연구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표현·이해 활동에 대한 연구 영역은 사용자(지식 기능 태도 등), 매개언어(문종 구조 문체 등), 과정 및 전략 등의 영역으로 더 세분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식에 대한 연구 영역에서는 언어와 문학과 언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영역 구분이 지니는 특징으로서 국어교육의 핵심을 학생들의 국어 활동으로 삼았다는 점, 국어 활동이라는 현상을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 문법 지식과 문학 지식을 국어 활동을 위한 지식 기반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문법 지식과 문학 지식 외에 언어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중요한 지식 요소로 삼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 설정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조금씩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 설정은 국어교육학 연구의 목표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으며, 국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을 ‘국어 활동’과 ‘국어 활동의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국어 활동은 국어 활동의 양식 면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국어 활동의 목적 면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어 활동의 교육은 그 목적, 내용과 목표, 방법, 평가, 자료 등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음도 알아보았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국어 활동에 관한 연구는 국어 활동 교육의 이론적 기저를 마련해 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국어 활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결과가 국어 활동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평가와 자료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적 시사를 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연구는 국어교육학 연구의 영역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교육학 연구의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어교육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교육은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관한 교육, 언어 지식에 관한 교육, 문학 교육 등의 세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국어교육의 이론적 기저를 마련해 주었던 국어학 이론과 문학 이론을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문적 전통이 매우 깊고 연구 인력 및 연구 성과가 방대한 이들 이론을 국어활동에 관한 이론 연구에 적절하게 수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체계화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

- 
- A 국어의 이해 활동에 관한 연구 영역
    - (1) 의사소통적 목적으로의 이해 활동 연구 영역
      - ① 읽기 이론
      - ② 듣기 이론
    - (2) 문학적 목적으로의 이해 활동 연구 영역
      - ③ 문학 이해 이론
  - B 국어의 표현 활동에 관한 연구 영역
    - (1) 의사소통적 목적으로의 이해 활동 연구 영역
      - ④ 쓰기 이론
      - ⑤ 말하기 이론
    - (2) 문학적 목적으로의 이해 활동 연구 영역
      - ⑥ 문학 표현 이론
  - C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연구 영역
    - ⑦ 국어 활동을 위한 국어학 이론
  - D 국어 활동의 교육에 관한 연구 영역
    - ⑧ 읽기교육 이론                      ⑨ 듣기교육 이론                      ⑩ 쓰기교육 이론
    - ⑪ 말하기 교육 이론                      ⑫ 문학 교육 이론                      ⑬ 문법 교육 이론
    - ⑭ 국어 교수-학습방법 이론                      ⑮ 국어교육평가 이론                      ⑯ 국어과 교육과정 이론
    - ⑰ 국어과 교재 구성 이론                      ⑱ 국어과 교사론
- 

#### 4.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 정립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대상과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교육학의 각 영역별 이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방법의 정립 또한 매우 시급한 일이다.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약간씩 다른 시각 혹은 관점에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먼저 이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용주 외(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가 국어 활동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국어 활동 방면을 연구해 온 학문들의 성과와 지식 체계의 수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교육학 연구를 위한 학문적 기저로서 국어의 기호 체계를 설명하는 학문(언어학, 국어학), 국어 활동의 사용 맥락을 설명하는 학문(언어사회학, 언어심리학, 언어철학, 언어인류학 등 인접언어학), 국어 활동의 형식을 설명하는 학문(수사학 문체론 논리학 언어 미



학 등의 언어양식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정보학 등의 실용학), 국어문화를 설명하는 학문(사상사 문화비교이론 문헌학 등의 문화일반학 등의 문화일반학과 문화사 한문 민속문화이론 등의 한국문화학), 문학을 설명하는 학문(문학일반학, 한국문학학), 교육을 설명하는 학문(교육철학 교육방법론 교사론 학생론 등의 교육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국어 활동의 다섯 국면 즉 사용 유형, 사용 목적, 문화 속성, 문화 양식, 행위 과정에 대한 앎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들 다섯 국면을 순수과학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구조화를 목표로 관찰하고 설명해야 하며,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어활동에 관한 이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행(1995)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별로 연구 중점 및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연구의 중점을 생활 관련적 연구, 복합적 관점의 연구, 교육적 관점의 연구 등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언어 활동을 단순한 기호 체계로 관찰하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된 언어의 복합적 측면들을 조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언어학적 성과에 의지해서만 국어를 설명하던 태도를 불식하고 실제의 언어 활동을 설명하는 여러 학문의 성과에 기반을 두어 복합적이고 학제적으로 언어 활동의 해명에 접근하는 연구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명완(최현섭 외 1996, 425-439)의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 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타파해야 할 잘못된 인식들의 예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어교육학을 인문 과학에 속하는 학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어교육학의 연구에 있어서 교육적 측면에 대한 관심의 소홀로 인하여 교육의 효과보다는 교육할 내용의 개념의 개념적 연구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어교육학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내용을 먼저 연구한 후에 지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 문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어교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유대와 민족의 정신을 살찌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다. 국어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국어교육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다양한 국어교육 이론이 개발될 때,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국어교육학 연구는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응집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어교육학 연구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각은 국어교육 연구를 국어학과 국문학과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의 병렬적 결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국어교육 관련 학회의 연구 논문집 편성 방식에서 이러한 시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어교육 연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묶음이 바로 국어교육 연구라는 등식을 성립케 한다. 둘째 시각은, 국어교육 연구를 국어과 학습지도와 직결되는 내용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결실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국어교육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장 연구물에서 이러한 시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어교육학 연구는 국어교육의 현장 경험과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통념을 확산시키게 된다. 셋째 시각은, 국어교육 연구를 국어학과 국문학에 관한 연구를 중심 축으로 삼고 연구의 말미에 교육적 적용 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어교육 전공의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러한 시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국어교육학 연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이 충분한 반성과 검토 없이 혼재함으로써 야기되는 국어교육학의 정체성 시비는 앞으로 체계적인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 국어교육 현상을 이론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국어교육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질적 개선이 보다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국어교육학 연구는 국어교육학 연구 목적의 역동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정체성 확립은 결과적으로 국어교육학 연구의 본질 규명을 가능케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어교육학 연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본질적이고 중핵적인 목적이 드러났을 경우, 중요한 것은 국어교육학 연구의 일원성, 배타성, 대립성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목적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학습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의 개발 등의 실용적 연구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 이론의 개발 연구와 이론의 적용 연구 등의 여러 분야로 확산시킴과 아울러 이들 각 분야의 연구 목적들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 즉 국어교육학 연구 목적의 역동성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국어교육학 연구는 연구 방법의 다양성과 연구 내용의 포괄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노력이 확산되고 심화된 이후에 그 윤곽을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될 국어교육학은 인문과학적 성격과 사회과학적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될 것이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법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일은 어느 하나의 연구 방법에 고착된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에게 생소한 다른 연구 방법을 무조건 질타하는 것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기존 학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더구나 복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 국어교육학의 경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론 연구와 실천 연

구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가치 있는 연구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연구 방법은 학문적 전통이 낮은 특정 나라에서 유행하는 방법이므로 폄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연구 방법의 교류가 신속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특정 나라의 학문적 전통에 고착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연구와 해석학적 연구와 비판이론적 연구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구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연구 방법의 다양성 확립과 병행하여 노력해야 할 것은 연구 내용의 다양화에 관한 일이다. 기존의 연구 내용 외에도 국어교육학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며, 연구의 주제 및 내용도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국어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는 데 있다. 언어는 세상을 우리 자신에게 표상하고 우리 자신을 세상에 표상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용한 도구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기본적인 도구인 동시에 문화를 규정 짓는 특성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이다. 학생들에게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학습을 북돋우고 촉진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교육 이론이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국어교육 이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어교육학의 개념, 연구 대상 및 목표, 연구 영역, 연구 방법 등의 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국어교육 현상을 학교 현장의 국어교육 실태, 국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국어교사 양성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국어교육학의 개념, 대상, 영역,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국어교육 현상 진단과 기존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국어교육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어교육학은 국어교육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국어교육학의 일차적 탐구 대상이 되는 국어교육 현상의 분야는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분야이어야 할 것이며, 국어교육학의 주된 탐구 대상이 되는 국어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국어교육의 목적, 내용 및 목표, 방법, 평가, 자료 등의 요

소이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은 ‘국어활동’과 ‘국어활동의 교육’이다. 국어활동에 대한 탐구의 결과는 국어 활동의 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국어 활동의 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은 국어교육의 목적, 내용 및 목표, 방법, 평가, 자료, 과정, 상황 등이 있다. 국어 활동 교육에 대한 탐구 대상은 국어 활동 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국어 활동 교육의 연구 대상은 국어 교육의 목적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의 평가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의 과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의 상황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일차적으로 국어 이해 활동에 관한 연구 영역, 국어 표현 활동에 관한 연구 영역,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연구 영역, 국어 활동의 교육에 관한 연구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영역을 세분하면 읽기 이론, 듣기 이론, 문학 이해 이론, 쓰기 이론, 말하기 이론, 문학 표현 이론, 국어 활동을 위한 국어학 이론, 읽기 교육 이론, 듣기 교육 이론, 쓰기 교육 이론, 말하기 교육 이론, 문학 교육 이론, 문법 교육 이론, 국어 교수-학습 방법 이론, 국어 교육 평가 이론, 국어 교육과정 이론, 국어 교재 구성 이론, 국어과 교사론 등이 될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탐구 방법은 국어교육의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학의 탐구 방법과 그 틀을 같이할 수도 있고, 국어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학의 탐구 방법과는 그 틀을 달리할 수도 있다. 또한 국어교육학의 탐구 방법은 탐구 대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학문 연구의 일반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단행본

- 김대행 (1995), 국어 교과학의 지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1995),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탐구, 서울: 교학사.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1996), 국어교육학 원론, 서울: 교학사.  
이대규 (1994), 국어과 교육의 과정, 서울: 한글과 컴퓨터.  
이대규 (1995), 국어 교과학의 논리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이용주 (1995),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범모 (1974),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최현섭 최명환 신현재 노명완 박인기 (1995),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서울: 일지사.  
최현섭 최명환 노명완 신현재 박인기 김창원 최영환 (1995), 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삼지원.

(2) 논문

노명완 (1993), “언어 현상과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전략”, <한국 초등 국어교육> 제9집. 한국초등 국어교육학회.

이용주 구인환 김은전 박갑수 이상익 김대행 윤희원 (1993) “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구조”, <서울대학교 사대 논총>, 제46집.

박영목 손영애 정준섭 외 (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고등학교 국어과>, 한국교육 개발원.

박영목 이삼형 윤여탁 허천행 (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중학교 국어과>, 한국교육 개발원.

박영목 이인제 손영애 신난수 (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국민학교 국어과>, 한국교육 개발원.

최현섭 (1993), “국어교육의 독자성”, <한국 초등 국어교육> 제9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철우 성낙수 이인제 (1994), <중학교 국어과 교육학의 학문적 체제와 교원 양성 대학의 교수 요목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 Theoretical Model of Korean Language Arts Education Research

Park, Young-Mok

( College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

### Summary

The most important task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encouraging and enabling students to learn to use Korean language effectively. Language is the most powerful and readily available tool for representing the world to the language users and the language users to the world. Through the Korean language arts education students should develop literacy skills they need to succeed in school, in the future workplace, and in the various domain of life. The teachers of Korean language arts need the profound knowledge for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art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ers should provide systematic knowledge for the teachers. This article proposed a theoretical model that identifies categories of research as purpose, content, and method.